

연습

Practice

최삼영 / (주)가와 종합건축사사무소
by Choi Sam-Young

“프로는 매일연습을 하며 기량을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이다.”

이는 건축학도 건축가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 유명한 선배 건축가의 말씀이다.

먹고사는 일에 시달려 매일 전화, 핸드폰, 대인, 대관 일들과 씨름하다 보니 내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았는지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다. 그러다 보니 연습을 해야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해본다.

최근들은 그간 죽 몰두해왔던 현상공모에는 손을 놓고 조그만 주택설계에 열을 내면서 새삼 능력의 한계를 피부로 느끼면서 뭔가 공부가 필요함을 새삼 느끼게된다. 남의 집을 무책임하게 연습하며 지을 수 없기에 남다른 연습의 장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다.

학창시절에는 건축수업의 데생, 수채화, 조각들을 배우기 위해 타 대학을 기웃거리던 기억은 다들 많았을 것이다. 당시는 그 공부가 건축설계를 하는데 무슨 용도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진 못했고 단지 선배나 교수님의 조언으로 무턱대고 틀락거리기도 했을 것이다.

건축이 단지 구조와 기능만을 담는 실체로서만이 아닌 그것들에 형태를 더하는 논리를 초월한 체취와 같은 것이 강하게 끼어드는 예술적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고 실천하는 연습의 장으로 선택된 공부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것이다.

최근 필자에게 초심으로 돌아가 학생이 된 기분으로 연습의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누드 크로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했다. 최근 사무실 위치도 강남에서 홍익대 부근으로 이사했으니 더욱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건축초년생때 월급을 받으면 제일먼저 그림그릴 종이와 붓 물감 등을 사재기했던 것들의 먼지를 털어 들어냈다. 십수년이 지난 종이들의 언저리는 누렇게 퇴색되었지만 펼쳐진 종이의 하얀 바탕은 어린 시절 그림

쟁이를 꿈꾸던 열정으로 가슴 설레게 한다.

목탄, 콘테, 6B연필을 챙기고 매주 3시간씩 필자는 일상에서 사라져서 연습(?)을 한다. 핸드폰도 끄고, 지하화실에서 일상을 버리고 온 또는 그것이 일상인 몇몇 동지들과 음모처럼 긴장의 시간을 숨죽이고 보낸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여성의 몸을 펜으로 더듬고 있자면 그녀의 몸에서 자연의 소리를 듣는다. 선은 서툴지만 속도와 굵기로 뼈와 살을 만들고 밝고 어두운 입체를 만들고 리듬을 만든다. 크로키는 순간의 예술이다. 2~3분의 짧은 시간 속에 모든 것을 그릴 순 없다. 게슴츠레 뜯눈으로 대상의 비례와 흐름을 읽고 단숨에 선으로 이어본다. 시간이 남아 어색한 몇 곳에 손을 대면 그림은 더욱 어정쩡해진다. 실패다.

많은 전달을 위해 수식이 많으면 시(詩)가 맛이 없어지듯 크로키 또한 그렇다. 골격, 근육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루 약 30포즈의 나신을 긴장 속에서 종이 위에 옮기다 보면 어느덧 스케치북이 반권쯤 넘어가 있다.

「산, 물, 그리고 인간」

우주에 대한 인식의 주체는 언제나 인간이다.

산과 물 그리고 인간을 떼어서 사고하는 것은 마치 무중력 속에서 메아리의 울림을 갈망하는 것과 같다.

산과 물은 삶의 목적을 보다 극명하게 밝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인간은 또한 그 속에 각자의 색깔로 녹아 스며든다.

우리는 두 개의 세계에 살고 있다.

가시적인 외부세계와 영적인 내부 세계를 넘나들며 자기의 존재됨을 확인해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다.

나는 이 두 세계의 매개를 위해 인간을 그려오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인간의 곡선속에서 고독, 사랑, 절망과 희열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선들이 해체되었다가 다시 모이면 그것이 곧 산이고 물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자연과 그 속에 조화를 이룬 인간의 모습을 매개하고, 이 대상들을 유희로 번안해 내는 것이 내 삶의 또 다른 기쁨이다.

-2001년 가을 김인순 누드크로키 개인전 팜플렛에서

김인순 선생은 누드 크로키를 가르치는 나의 사부다. 그녀는 건축의 아름다움을 인체의 아름다움에 비유한다. 건축의 구조가 갖는 비례, 리듬은 인체의 골격으로 마감이 갖는 느낌은 피부로 이해될 것이다. 신이 인간을 창조하고 건축가는 인간이 살 집을 창조한다.

하여 땅위에 가장 창조적 직업으로 위안 받기에 감히 신의 피조물로부터 건축적 영감을 얻고자 뜨거운 열정으로 누드크로키에 심취해 본다. 圖



김인순작 (한지에 먹)



최심영작 (쟁지에 목탄)